

먹을거리에 대해

: 육식과 채식 사이에서 균형 잡기

강상우(목사)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고찰이다.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 육식과 채식의 식습관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채식이나 육식(잡식)이나”의 문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식습관에 대한 자유함을 누려야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채식이나 육식이나의 식습관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부 구약(율법)으로 회귀를 원하는 비정통기독교인들 중의 일부(또 그것이 성경과 거리가 먼 주장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비정통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모르고)에서 돼지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누릴 필요가 있다.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拘束)이 아니라 구속(救贖)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적 건강상의 필요에서나 공장형 사육(factory farming)의 병폐 등과 같은 육식으로 오는 부정적인 제(諸)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의 고기의 섭취를 줄인다든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로 가능한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채식이나 육식이나가 식습관의 문제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장식 농장이나, 가공식품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돈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에게 채식주의자나 육식주의자들의 비판적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는 비난과 감시의 눈을 먹을거리(식탁 음식)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그리고 건강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돌려야 할 시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채식(주의). 육식(잡식주의). 공장식 농장. 돼지고기.

I 들어가는 말

1 본고와 관련된 두 斷想

본고와 관련해서 두 개의 단상이 나에게 있다. 거의 같은 시기, 중고등 학창시절의 기억이다. 하나는 육식이나 채식이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식 중에서 소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계된 것이다.

앞에 것은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인근에 있는 친구 교회의 부흥사경회를 이끌기 위해 오셨는데, 그 부흥강사를 접대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는 얘기였다. 왜냐하면 그 분께서는 외국에서 유학생 활을 하시면서 식습관이 선식으로 바뀌셨기 때문이다. 당시 부흥강사님의 선식 습관 때문에 그 교회의 여전도회의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이 매우 당황했었던 것이다. 자고로 교회에 오신 손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귀중한 손님을 기쁘신 것(괴기)으로 잘 대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당시에 교회에서 그리 익숙하지도, 좀처럼 들어보지도 못한 부흥강사님의 선식(鮮食) 식습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우 애를 먹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창시절 사회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다.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는 상대를 놀리기(서로를 자극하기) 위해서 적들의 종교가 타부시하는 동물을 잡아서 냄새를 상대방으로 날아가게 한다는 내용이였다. 인도에서는 파키스탄 회교도(이슬람교)들이 금지시키는 음식인 돼지를 잡아서 죽인 후에 돼지 냄새가 파키스탄으로 날아가도록 굶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파키스탄 쪽에서는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신성시하는 암소를 잡아서 요리한다는 내용이였다. 지금까지 학창시절 사회 선생님께서 하신 내용의 진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당시 사회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의 의중(意中)은 바로 종교에 따라 음식에 대한 타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임은 틀림없을 것이다.(부연하자면 사실 학창시절 우리 사회선생님의 수업은 그야말로 나에게서 최고의 시간이었다. 우리 사회 선생님은 만물박사님 그 자체이셨기 때문이다. 사회 선생님께서 당시 하신 예언중의 하나가 바로 [공부 못하면] 남자들 중 일부는 외국인 신부에게 장가든다는 것이였다. 그 예언은 ‘공부 못하면’이라는 말을 빼면, [거의] 대부분 적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의 얘기와 관련해서 새롭게 접한 자료가 있는데, 이슬람교도들이라고 해서 절대적(絕對的)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이는 理論的으로는 確實하다). 다시 말해 이슬람교도들의 경전인 『꾸란』(Quran)에 예외적(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와 죄를 지을 의도 없이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경우에 한하여)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진정 알라를 숭배한다면 알라께서 주신 좋은 것을 먹고 감사하라. 죽은 동물, 피, 돼지고기, 알

1) 다음 사건은 선생님 이야기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다. “1980년에 대중언론에 실리기도 한, 뉴델리 남동쪽의 모라다바드(Moradabad)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무슬림들이 라마단의 종료를 알리는 중요한 제전인 이드 알피트르(Id al-Fitr)를 올리고 있던 기도소에 돼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분노한 무슬림들은 힌두교도들이 의도적으로 돼지를 풀어놓아 기도소를 더럽히려 했다고 생각하고 근처의 힌두교도들을 공격했다. 경찰이 개입하여 발포하고 전투를 벌인 뒤에야 이 사건은 끝났으며, 그 와중에 세 명의 경찰관과 스물네 명의 일반인이 죽고, 총탄, 돌, 기타 무기에 의해 수백 명이 다쳤다. 힌두교도들도 대부분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불행한 모라다바드 사건은 괴이한 사건이다.”(Simoons, 2005: 84).

라게 바쳐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욕심을 내거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에는 죄가 아니다. 진정 알라는 관용을 베푸시고 자애로우시도다”(『꾸란』 2: 172-173). “죽은 동물, 피, 돼지고기, 알라게 바쳐지지 않은 것, 목 졸라 죽인 것, 때려죽인 것, 떨어져 죽은 것, 뿔에 찢려 죽은 것, 목숨이 살아 있어 도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야생동물이 먹는 것, 제물로 희생된 것, 점괘로 잡은 것은 금지된다. (...) 그러나 죄를 지을 의도 없이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것은 허용한다. 진정 알라는 관용을 베푸시고 자애로우시다.”(『꾸란』 5: 3; 박현도, in 이찬수 외 공저, 2013: 104, 105 재 인용; 엄익란, 2011: 35.2); 장 후세인은 “돼지고기”를 다만 원칙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만 다루고 있다. 장 후세인, 2013: 177-190. “할랄(Halal: 허용된 것) & 하람(Haram: 금지된 것) 참조.”³⁾

또 힌두교들이 처음부터 쇠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종교적·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쇠고기를 먹는 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뿐 쇠고기를 먹는 것은 인도인들과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인도의 힌두교들의 일부에서는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은 D. N. 자(D. N. Jha)가 쓴 『인도 민족주의의 역사 만들기: 성스러운 암소 신화』(The Myth of the Holy Cow)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Jha, 2004). 자(D. N. Jha)에 의하면, 암소숭배 즉 ‘암소의 불침해성’(inviolability, 신성불가침, 살해할 수 없음)은 역사적으로 힌두의 정체성(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을 만들기 위한 힌두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밝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바로 ‘힌두’ 정체성을 만들어내려는 전쟁 차원에서 인도국민당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힌두의 색채로 다시 쓰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런 맥락에서 초기 인도에서 널리 시행되던 쇠고기 육식 관습에 대한 전거들을 모두 삭제하고 있다. ... 인도 북동부에서 쇠고기는 필수 음식물이며, 가장 남쪽에 위치한 케랄라(Kerala)에서는 힌두 브라만을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신도들이 쇠고기를 먹는다. 이른바 불가촉민이라 불리는 하층민(짚달라 candala)들은 인도 전역에서 모두 암소 고기를 먹는다. 이런 예만 보아도 우리는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힌두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Jha, 2004: 16-17, “한국어판 특별서문”, 15-17 참조). 쇠고기를 먹은 관습이 언어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손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고르나(goghna)⁴⁾인데 그 뜻이 바로 ‘암소를 죽이는 자’라고 한다. 이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목적으로 암소를 잡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당시 인도에서 쇠고기 육식이 널리 행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김경학·이광수, 2006, 39)

채식이냐 육식이냐, 식습관의 문제는 오늘날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물음이며, 또한 양자 간의 논쟁의 주제가기도 하다. 이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강조 때문에, 고도 비만과 다이어트 때문에도, 농장식 사육(factory farming)으로 인한 제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동물 해방, 또는 동물 권리와와의 관계에서도,

2) “그러나 금지된 음식이더라도 기아의 상태에 생명이 위협할 때(『꾸란』 2:173; 16:115; 6:145), 목숨을 구할 때, 또는 무의식중에 먹었을 때(『꾸란』 2:173; 16:115; 6:145)는 허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엄익란, 2011: 35).

3) “‘할랄’을 잡아라” <MBC> (2015.03.29); <http://v.media.daum.net/v/20150330101213127?f=o> 참조.

4) “암소를 의미하는 용어 gau(가우)는 서로 다른 어형으로 『리그베다』의 그리히야수뜨라에 176번이나 언급되고, 그와 관련된 소는 약 700번 정도 언급된다. 초기 아리아인에게 소는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재산이었고, 으뜸가는 부의 형태였다. 부자를 고마뜨(gomat)로 족장을 고파(gopa) 혹은 고파띠(gopati)라고 불렀다.”(Jha, 2004: 44).

광우병이나 구제역(口蹄疫)의 발생으로, 환경보호의 문제 등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먹는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이들(금융자본가들이나 그들에게서 연구 후원을 받고 있는 연구자들, 언론매체 등)에 의해서 자주 채식이나 육식이나의 문제는 TV와 신문지상에 자주 내려오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본고는 기독교 관점에서 육식과 채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2 본고와 관련해

1) 관점에서: 제목에서처럼 “먹을거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것도 기독교 관점에서 말이다. 다양한 식습관이 존재한다. 종교들은 채식과 육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만 본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육식이나 채식이나의 문제 등을 바라보고자 한다. 물론 성경은 구속사(救贖史)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육식이나 채식이나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다른 많은 영역에 대해서도 그랬었던 것처럼 ‘먹는 것’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시사점을 여전히 던져 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경 인물들의 역사적 이야기(Narrative)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public life)를 통해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 등의 가르침과 사건 등을 통해서 즉 직설법(Indicative)과 명령법(Imperative)을 통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음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교회에서 ‘먹을거리에 관해’(우상의 제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성경이 채식이나 육식이나의 제문제 등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육식과 채식에 관련된 역사적·과학적 자료들을 보충적으로 사용하여 채식과 육식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보완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에 반대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확실하기 때문이다.

2) 해석에서: 본고의 기독교 관점은 글쓴이의 개인의 관점이라는 것을 염려해두어야 함을 밝힌다. 그래서 a christian perspective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안에서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음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글쓴이의 관점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항상 재고(再考)해 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으로 제한된 사고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더욱 더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3) 제목에서: 인간을 채식(주의)과 육식(주의)로 양단(兩斷)하여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순수한) 채식주의자(vegan)들은 있을 수 있지만, 고기만 먹고 사는 (순수)육식주의(carnivore)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육식과 채식으로 인간을 나눌 때는 채식주의와 잡식주의(채식+육식)로 나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고 제목에서의 육식(주의)은 다양한 유형의 채식(주의)을 배제한 상대적 의미를 지닌 다양한 의미의 잡식(雜食) 스펙트럼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Joy, 2011: 35-37 참조). 물론 채식주의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원칙적으로 채식주의, 육식주의라고 할 때 ‘주의’(ism)라는 말은 신념(信念)과 관계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먹지 못하거나 취향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최훈, 2012: 52 이하; Joy, 2011: 35). 그렇지만 본고에서 포괄적으로 일상적으로 우

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채식주의·육식주의라는 말은 신념뿐만 아니라, 취향과 같은 문제도 포함할 것이다.

3 본고의 내용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II. “채식인가 육식인가”에서는 (a) 먼저 식습관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난후 식습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기독교세계관 즉 ‘창조-타락-구속’의 구조 안에서 성경이 채식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육식(잡식)에 대해서 말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Don Colbert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비정통기독교 집단들이 돼지고기 식용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특정 음식에 대한 고집과 식습관에 대한 고집은 이교도에게서 온 것으로 영적 우월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술할 것이다.

2) III.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 있다.”에서는 육식이나 채식이나, 즉 특정 식습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그리고 자신의 식습관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식습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들에게 향한 각자의 지적들을 통해 서로에게 배우(일종의 反面教師)는 것과 더불어, 공통의 문제인 ‘먹을거리(식탁, 밥상)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고민은 음식 문제들과 관련해서 진정한 적대자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와 동시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동역자(同役者)의 자세를 지적해 보았다.

II 채식인가 육식인가의 문제

1 다양한 스펙트럼

오늘날 채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육식을 해야만 하는가? 먹는 것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식습관과 관련된 이들의 명칭만 봐서도 알 수 있다. 김일방(박상언, 2014: 322, 10번 주석; 이광조, 2003: 407-410; 최 훈, 2012: 287-306 참조)은 채식주의의 유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로 간략히 소개한다.

다양한 채식주의자들을 구분할 때에 육(肉)고기·물고기·난류(卵類)·유제품(乳製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비건(vegan)은 이 모두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어떤 이들은 실크나 가죽같이 동물에게서 원료를 얻는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비건들 중에서도 과일 위주의 채식하는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프루테리언(fruitarian)이라고 별도로 칭하기도 한다. 지금은 고인(故人)이 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n Jobs)도 바로 프루테리언이었다고 한다. 남아프리카에 체류 했던 동안 마하트마 간디도 어떻게 보면 프루테리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일과 열매만으로 먹고 살았다”고 하기 때문이다.(Gandhi, 2007: 293). 락토(lacto)채식주의자는 락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건과 비교할 때 다른 것을 먹지 않아도 유제품만은 먹는 채식주의자

들이다. 오보(ovo)채식주의자는 비건과 비교할 때에 난류만을 먹는 이들을 가리키며, 난류와 유제품을 모두 먹는 이들을 락토-오보(lacto-ovo)채식주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모든 것은 먹되 단지 육(肉)고기만을 먹지 않는 이들을 페스코(pesco)채식주의자라고 한다. 반쪽(semi) 채식주의자라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포유류를 비롯한 붉은 고기만 안 먹지만 가금류는 먹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한다(김우열, 2012: 35-40 참조). 대부분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하는 사람을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있다.(정한진, 2012: 71).

구분	육고기	물고기	난류	유제품
비건(vegan) ⁵⁾	X	X	X	X
락토(lacto)채식주의자	X	X	X	O
오보(ovo)채식주의자	X	X	O	X
락토-오보(Lacto-ovo)채식주의자	X	X	O	O
페스코(pesco)채식주의자	X	O	O	O

자료: 김일방 in 박상연, 2014: 322, 10번 주석

또 다른 독특한 유형으로는 프리건(freegan)이라는 이들도 있는데, 싱어와 메이슨(Singer and Mason)은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쓰레기 다이버들 중에는 자신들을 ‘프리건’(Freega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베건의 한 단계 진화형이랄까. ... 어떤 형태의 음식이라도 돈 주고 사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프리건들은 베건보다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유연한 점도 있는데, 그들은 쓰레기라고 하면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도 윤리적으로 꺼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물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돈을 보태고 싶지 않을 뿐이다(Singer & Mason, 2012: 374).

그 외에도 ‘토식주의자’([로커보어] locavore, 일본에서는 地産地消, 우리나라 식으로는 身土不二)라는 이들이 있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나는 음식만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시카 프렌티스(Jessica Prentice)가 만들어 냈다고 한다.(Keith, 2013: 130; Singer & Mason, 2012: 204). 싱어와 메이슨(Singer & Mason, 2012: 137)이 만든 “양심적 잡식주의자”(conscientious omnivore)⁶⁾를 칭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육고기나 생선을 먹되, 일정한 윤리적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만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육식(잡식)주의의 경우에도 금기시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가 학술적으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제한적 육식주의자(돼지), 제한적

5) vegan은 [vɛdʒən](미국식)과 [vi : gən](영국식)으로 발음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은이와 번역자에 따라 비건, 또는 베건·베건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표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6) 이 명칭은 마이클 폴란(Michael Polan)이 인도적으로 길러진 동물의 고기만 먹는 사람들을 ‘인도적 육식주의자’(humano-carnivore)와 스크루톤(Roger Scruton)의 “양심적인 육식주의자”(conscientious carnivore)의 명칭을 참조하여 만든 말이다. 싱어와 메이슨이 봤을 때 순수 고기만 먹는 육식주의자(carnivore)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잡식을 의미하는 Omnivore를 붙인 것이다(Singer & Mason, 2012: 136).

육식주의자(개고기), 제한적 육식주의자(쇠고기) 등으로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 성경에서

성경은 채식과 육식(잡식) 사이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일부 비(非)정통기독교에서 주장⁷⁾하는 것처럼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위에서 살펴본 여러 유형들 중에 특정한 유형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모로 수궁이 가지는 돈 콜버트(Don Colbert)가 던진 과거의 질문은 여전히 제한적(制限的)으로 유효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오늘날 먹을 거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쪽의 일부가 비정통기독교들에 속하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먹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식습관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Colbert, 2003: 8).

앞에서 개인적으로 돈 콜버트(Don Colbert)의 주장이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음식이 종류가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사셨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콜버트가 말한 올리브기름의 경우 지금은 세계화(Globalization)가 되어서 우리가 손쉽게 가게에서 구매 먹을 수 있는 기름이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매우 구하기 어려운 기름이었다. 그런데 만약 3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올리브기름을 먹으시오. 그러면 ….”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콜버트의 주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 기간이나 사례들을, 예로 들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식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식습관의 경우도 계시의 점진성(啓示의 漸進性)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성경은 채식과 육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자. 어떤 특정한 식습관의 유형이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특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창조-타락-구속의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세계관에서 말하는 ‘창조-타락-구속’의 구조 과정을 통해 식습관을 살펴보면 다음

7) 다음의 기독교 종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한다.(장 후세인, 2013: 181).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Seventh Day Adventists); 하나님의 교회 Church of God; Living Church of God; 네스토리안 교회(Nestorian Church); 러시아 몰로칸교(Russian Molokan); 스튜어턴 바이블 스쿨 스코틀랜드(Stewarton Bible School Scotland); 이디오피아 정교회(Ethiopian Orthodox Tewahedo Church); 메시아닉 유다이즘(Messianic Judaism).

과 같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1) 창조: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동산에서의 삶을 통해 창조 당시의 인간은 채식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너무 문자주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과일) 등을 식물로 먹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⁸⁾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채식주의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창1:29) 아울러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생명체를 초식동물로 계획하셨다. 이 내용 또한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30)(Colbert, 2003: 26).

「창세기」와 관련해서 참고로 급진적 채식주의자들 중에는 인간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에덴동산에서의 추방된 선악과(善惡果) 사건을 ‘채식의 규율을 어기고 육식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 전체와는 전혀 맞지 않게 해석하는 이들이 역사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절대적인 채식주의’일 것이다. 즉 “채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죽게] 되었다. 그러니 다시 채식으로 돌아서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왜곡한다는 것⁹⁾을 망각하고 단지 앞에 있는 자신들의 주장과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뉴턴(John Frank Newton)은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일종의 우화로서, 거기에는 두 종류의 음식이 신비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한다. 낙원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각기 동물과 채소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치명적인 대가는 ‘죽음’이다. 뉴턴은 그 우화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죽음의 양상을 ‘질병’과 ‘조기 사망’으로 해석한다. 최초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해부학적 신체 구조’에 적합한 음식을 먹고, 장수와 건강한 삶을 포기한 채, 해부학적으로 자신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동물을 음식으로 택함으로써 그러한 치명적인 형벌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다.(박상언, in 박상언, 2014: 212-213; Adams, 2006: 212-214 참조).

이광조의 책의 내용에서도 성경의 내용을 변개해서 예수님께서 채식주의자였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는 채식주의였을까? 미국의 유명한 동물권리 옹호단체인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www.peta-onhne.org 참조)은 ‘예수는 채식주의였다. 그를 따르라’고 외치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햄버거와 스테이크 등을 먹지 말라고 권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이광조, 2003: 309; 이광조, 2008:

8) 개인적으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에서 ‘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 이는 유전자조작(GMO)식물이 가진 ‘불임’ 종자(terminator 씨앗)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NIV seed-bearing plant; fruit with seed).

9) 성경 전체적 가르침을 무시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성경과 전혀 무관한 다음과 같은 구성도 가능하게 된다. 가인-곡식, 아벨-고기. 하나님은 육식을 선호하신다? 그것도 화식으로 말이다. 제단에 번제를 드림.-하나님은 화식을 선호하신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 맥락에서 봐야만 한다.

43-44 참조). 그러면서 PETA 단체가 예수님께서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성경 텍스트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사본의 기록을 보면 물고기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아람어(당시 이스라엘의 말)로 이야기했고, 성서는 부활 이후 몇 세대가 지난 다음 쓰여 졌으며 예수의 부활 이후 300년 이상이 지나 두 가지 언어의 번역을 거쳤으며, 수많은 필사(손으로 쓴)를 거친 그리스어 번역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증거들에 따르면 부활 이후의 이야기는 아주 뒤늦게 성서에 덧붙여진 것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초기의 서술에는 물고기가 원래 들어 있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로 사도들은 예수에게 어디서 군중을 먹일만한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사해가 바로 옆인데도, 그밖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원래는 물고기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이른 시기에(성서 이전) 기록된 이 이야기에서는 물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수가 오직 빵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그리스인 필경자에 의해서 그 이야기에 물고기가 덧붙여졌고, 물고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ixous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의 머릿글자를 모은 글자다. 지금도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독교가 싹트는 것을 예측한 상징이지 동물을 먹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이광조, 2003: 311); 이광조, 2008 참조)..

PETA의 주장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오병이어(熬餅二魚)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채식주의자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도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매우 필요한 것이다.

(2) 타락: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곧바로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이광조의 지적처럼 타락 이후에서 곧바로 고기를 허용하셨다는 기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규칙을 어겨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들이 음식으로 부여받은 고기가 아닌 밭의 채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몇 번이나 인간이 원래는 식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이광조, 2003: 306; 창 3:18¹⁰) 참조).

성경에서 육식은 타락 후, 더 구체적으로 말해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육식을 허용하셨다(창9:1-4; 물론 레위기 11장에 나온 먹을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에 대해서는 논외[論外]로 한다. 그렇지만 레위기 11장의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육식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9:3]; NIV. “Everything that lives and moves will be food for you. Just as I gave you the green plants, I now give you everything”). 일부 비정통기독교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금기는 사후에 기술하기로 하겠다). 그러므로 타락 후 인간은 잡식¹¹⁾이라고 봐야만 한다. 다만 채식과 육식(잡식) 사이에 다양한

10)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창3:18); “It will produce thorns and thistles for you, and you will eat the plants of the field.”(NIV).

11) 마이클 폴란은 펜실베이니아의 심리학자인 로진 박사(Paul Rozin)가 쓴 개념인 ‘잡식 딜레마’(The Omnivore’s Dilemma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는 모든 잡식동물을 괴롭혀왔다.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일이 필연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은 확실할 것이다. 자의에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채식이나 육식이 모 든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존재했을 것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보다 육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 것이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경우에는 채식 > 육식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사상적, 생태환경에 따라서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집단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채식 < 육식의 구조를 보였을 것이다. 동물의 사육기술의 변화와 육종학의 발전으로 동물들의 숫자가 증가했다고 의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 중에는 “인간은 채식동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푸른생명한국채식연합 서울대표인 이광조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앨런 위커의 연구에 근거해서 인간이 초식동물이라고 주장한다.(이광조, 2003: 46. 45-51 참조; Robbins, 2014: 413. “인간의 창자와 육식동물의 창자를 비교한 그림” 참조)¹²⁾. 다만 빙하기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 즉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는 수 없이 육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이광조, 2003: 52).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육식을 소유한 잡식이라는 점을 얘기한다. 최재천 교수는 제인 구달(Jane Goodall)의 위대한 발견의 업적 중의 하나가 바로 침팬지가 뜻밖으로 육식을 좋아한다는 것이라고 한다(최재천. in Wrangham, 2011: 8). 진화론자의 관점에서 인간은 유인원(類人猿, ape), 즉 원숭이(monkey)가 아닌 영장류(靈長類, primate)에서 진화되었는데, 이 영장류 중의 하나인 침팬지를 잘 관찰해보니 고기도 먹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육식(잡식)성 존재라는 것이다. 리처드 랭엄(Richard Wrangham)도 진화에 대한 자료를 보았을 때도 인간이 육식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육식으로 인해 인간이 직립 원인이 가능하게 되었다고까지 한다. “인류의 기원은 다음의 질문과 직접 연결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직립원인이 튀어나오게 만든 힘은 무엇인가?’ 인류학자들에게 1950년대 이래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에 따르면, 직립원인으로의 진화를 촉발한 힘으로 추정되는 것은 단 하나 ‘육식’이다.”(Wrangham, 2011: 18).

잡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은 채식주의자의 경우에는 진화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육식(잡식)적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본래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의 육식을 하지 않는 채식(주의)에 가까운 존재(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열매를 먹는 동물[frugivore]’)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¹³⁾ “그래 인간 잡식 맞아. 그런데 거의 채식주의에 가까운 잡식이야”라고 말이다.

적으로 불안을 일으킨다. 눈앞에 놓여 있는 먹을거리가 병을 일으키거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을 있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이것이 바로 잡식동물의 딜레마다.”(Pollan, 2008: 17).

12) 반면에 『채식의 배신』의 저자인 리어 키스(Lierre Keith)는 “인간과 개, 양의 기관 및 기능 비교”(Walter L. Voegtlin의 The Stone Age Diet를 인용함)를 통해서 인간이 육식동물임을 강조한다.(Keith, 2013: 236-245 참조); 개인적으로 인간이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어떤 마인드(관점)를 가지고 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채식동물과 가까운 것으로도 또는 육식동물과 가까운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3) 참고로, 채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리어 키스(Lierre Keith)는 거의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만 채식보다는 육식(잡식)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우리의 직접 조상들은 나무 위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 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인류가 살아남은 것은 2가지 유리한 유전자 덕이었다. 손가락과 마주 보게

자신을 채식주의자가 아닌 단순 채식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김우열은 자신의 쓴 책 『채식의 유혹: 육식의 족쇄를 풀어라!』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던 것이다. “인간이 영장류들, 그 중에서도 침팬지와 여러 모로 가장 흡사하다는 점이다. 침팬지는 예전에는 초식동물로 분류되다가, 제인 구달 등의 침팬지 연구가들의 연구 결과가 나온 뒤로는 잡식동물로 분류하는 사람도 많다. ‘뭐야, 그럼 인간도 잡식동물 맞잖아!’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침팬지가 뭘 얼마나 먹는지부터 한 번 보자.”(김우열, 2012: 268). 그러면서 김우열이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제인 구달과 낸시 L. 콘클린-브리튼(Nancy L. Conklin-Brittain)의 연구 결과를 비교 정리한 다음과 같은 표다.(제목은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붙였습니다).

표2: 침팬지의 먹거리 종류와 양		
먹거리 종류	구달(J. Goodall)	콘클린-브리튼(Conklin-Brittain)
열매	59.5%	64%
잎사귀	21.4%	23%
꽃잎	4.1%	2%
씨앗	5.0%	3%
곤충	4.1%	(먹이)4%
고기	1.4%	
기타	4.0%	4%

* 퍼센트는 '특정 활동에 들어간 시간'을 뜻함.

자료: 김우열: 2012: 269.

돈 콜버트도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들도 잡식성이다. 그것들은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고, 이따금 작은 동물과 알, 도마뱀 등을 잡아먹는다. 고릴라는 전체 섭취 열량의 단 1%만을 육류를 통해 얻고 있다. 오랑우탄도 육류를 통해 얻는 열량이 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만이 전체 섭취 열량의 50%를 육류를 통해 얻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Colbert, 2003: 29)고 기록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성경은 광야에서의 메추라기 사건(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식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재앙(災殃)은 하나님이 육식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탐식(貪食)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봐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육식중심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채식중심의 식습관을 지닌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식탐(食貪)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콜버트의 글을 다시 길게 인용한다.

난 엄지, 그리고 육·채식을 가리지 않는 소화 능력이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본능과 소화력을 갖쳤다.”(Keith, 2013: 236).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은 일용할 양식이던 만나에 대해 불평을 토로한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하며 불평을 한다.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으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걸 이편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십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민11:31-34)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한 호멜은 쉽게 표현하면 한 가마니 반 정도의 양이다.]¹⁴ 정도의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Colbert, 2003: 100, 강조는 연구자).

(3) 구속: 구속의 날에는 어떻게 될까? 개인적인 상상력일지 모르지만, 앞의 표에서 기록했듯이,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일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처럼, 확실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 NIV,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확실히 그 주제에 관해서만큼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육식이냐 채식이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을 따름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성령 안에서의 상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볼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거울(당시에는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우 희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상황이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but not yet) 사이의 긴장의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잡식이 허용될 뿐이지, 구원이 완성되는 날(영화의 단계)에는 육식은 허용되지 않고, 채식주의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 후에도 육식과 채식이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될까?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까?

출애굽당시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장차 하나님나라에서의 삶이란 육식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주기도문에서의 ‘일용할 양식’의 모태는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이다. 시편 78편에도 만나의 이야기가 나온다(시78: 24-25). 거기서 나온 만나(시78:24)는 “권세 있는 자의 떡”(시78:25)으로 재설명되었는데 NIV에서는 the bread of angels로, KJV에서는 angels’ food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Allen, 2007: 89 참조) “천사들이 먹는 빵(음식)=만나,” 그렇다면 육식이 아닌 채식 더 좁혀서 말하면 곡물식(穀物食)이 될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서서 최후의 만찬 때에 빵(떡)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더욱 곡물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의 설명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채식은 더욱 강화해주는 느낌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1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yobiz&logNo=70141898427>. “호멜(Homer) 이스라엘의 고체측량 중 최대 단위로 약 230리터에 해당합니다. 호멜은 ‘당나귀’라는 뜻으로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을 나타냅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사 11장). 특히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사11:7, NIV, “the lion will eat straw like the ox”) 육식의 대명사인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한다.

표3: 기독교세계관과 식습관 유형

기독교세계관	식습관 유형
창조	채식
타락	채식(대홍수 이전) 잡식(대홍수 이후)
구속	원칙적 자유함(채식) 구속된 잡식(본 연구자 입장)

하나님나라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 ‘구속된 잡식(救贖된 雜食)’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개인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관점에 대해 무천년설(amillennialism)이 다른 주장에 비해 좀 더 설득력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시기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구체적으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항상 압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평범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며 성실히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 영역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음식에 관한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삶의 영역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리하는 법, 요리 장식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장차 올 하나님나라는 “새 에덴”(庭園)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都城)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계21:2 NIV,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톰 라이트(Nicholas Thomas Wright)는 이를 쉽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세상은 단순히 이전 세상의 대체가 아니라 변형이 될 것이다.”(Wright, 2009: 257),

...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실제로 교회 자체가, 천국의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러한 관점은 온갖 종류이 영지주의, 즉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보는 모든 세계관들을 궁극적으로 거절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최종적 응답이다.(Wright, 2009: 177).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음식과 식습관에 관한 것 또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but not yet)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다시 말해 오늘날 잡식의 식습관도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과 긴밀한 관계(톰 라이트의 말처럼 “대체[代替]가 아니라 변형[變

形)에 놓이게 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식습관 유형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2) 돼지고기

돼지고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통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 11장의 규율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재고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이다. 비정통기독교에 해당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Seventh Day Adventists) 등은 구약의 규율을 강조한다.(일종의 구약으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들이 구약을 강조하는 일종의 구약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부인[否認]과 관계있다). 그러한 강조의 연장선상의 하나가 바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콜버트는 “예수님이 드셨던 육류와 관련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다음을 열거한다(Colbert, 2003: 80).

- 예수님은 돼지고기를 비롯해 부정한 동물의 고기는 드시지 않았다.
- 예수님은 동물의 기름을 드시지 않았다.
- 예수님은 도살된 동물의 피는 드시지 않았다.
- 예수님은 육류를 이따금 드셨다.

여기서도 콜버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아마도 “지방(脂肪)량을 줄여라. 지방의 섭취를 최소화하라.”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의 섭취가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물의 기름을 드시지 않았다”는 콜버트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구약의 규율에 비추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해하는데 불과하다는 점이다. 레위기에서 돼지고기와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콜버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시 말해서 콜버트와는 다르게, 신약적 관점에서 콜버트의 주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이해(해석)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콜버트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부정한 동물인(레위기 규범에 따라) 돼지고기를 드시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데, 자신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살도록 하셨을까? 라는 질문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 분께서 음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유보(留保)하셨을까? 아니면 친히 예수님께서 하층민들과 식사를 함께 하실 때 부정한 음식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고 훈육하시면서 그들의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셨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도 아니면 당시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던 음식들을 예수님께서 최하층 민들과의 함께하는 식사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셨을까 하는 점이다.¹⁵⁾

15) 돼지는 희생 제물로 흔히 쓰였으며, 돼지나 돼지 새끼는 고대의 제물용 동물 중에서 가장 값이 싸기도

성공회 장애인센터 ‘함께 사는 세상’ 원장인 박태식 신부는 당시에 하층민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예로 들어, 당시 예수님께서 하층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 앞에 거론한 율법의 음식 규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럴 수 없는 음식이 분명하게 구별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먹을 것 못 먹을 것을 가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고 흔히 죄인들로 분류되었던 하층민들이나 주변부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으려면 부정한 고기라도 먹을 수밖에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 곳은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집에서 예수님에게 대접한 음식이 혹시 부정하지 않은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을 테고, 예수님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수상쩍은 고기 한 점을 들고 덤석 베어 물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비를 걸었습니다.”(박태식, in 이찬수 외, 2013: 97-98). 그러면서 박태식 신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 음식물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입장은 마르코복음 7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무엇을 먹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먹고 나서 하는 행동이 문제입니다.”(박태식, in 이찬수 외, 2013: 98).

레위기의 연장선에서의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돼지에 대한 해석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물학대자로 비추게 하여 정통기독교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Attfield, 1997: 82 참조¹⁶⁾)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콜버트의 글에서 돼지가 부정하다는 생각이 돼지의 몰살(沒殺) 사건(막 5장)의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돼지를 몰살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적 전개로 거라사인의 돼지 떼 몰살 사건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람을 만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귀신은 그 남자의 입을 통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 니이다”하고 대답한다. 그때 마침 산기슭에는 방목하는 돼지 떼가 있었다. 그 남자에 씌어 있던 귀신은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막5:12) 하고 예수님께 간청한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그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 산언덕을 달려 내려가 모두 물에 빠져죽는다. 돼지가 깨끗한 짐승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귀신이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귀신을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부정한 대상을 부정한 대상답게 처리하셨던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로마 신들을 위한 의식이 매일 치러졌다. 소는 ‘상위의 신’들을 위해 바쳐졌고, 돼지는 ‘하위의 신’들을 위해 바쳐졌다.(Colbert, 2003: 81-82).

했다.(Nilsson, 1940: 24; Simoons, 2005: 52 재인용); 헤커(H. M. Hecker)가 “돼지는 가난한 계층의 주민들이 더 흔하게 먹는 음식이었다”라는 감정적인 주장을 한 것은 이와 같은 증거[돼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때문이다(Hecker, 1982: 62; Simoons, 2005: 122 재인용).; “실제로 모든 문화에서 고기 요리는 가부장과 최연장자, 상류층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음식에 속했다. ... 당시에 농부들은 어쩌다가 한 번 가끔류나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뿐이었다”(Müller, 2007: 159).

16) “예수는 동물 살상과 식물 훼손을 금지하는 것이 미신의 절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인간과 짐승, 나무는 어떤 공통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수는 악마를 한 때의 돼지 무리 속으로 보냈고, 저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시들어버리게 했기 때문이다.”(Passmore, 1975: 36; Attfield, 1997: 82 재인용).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박현도는 돼지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얼마나 퍼져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교 성서에는 예수가 사람 몸에 들어와 살던 귀신들을 쫓아내려 하자 귀신들은 자신들이 살기에 적합한 동물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가 허락하여 귀신들이 이천 마리에 달하는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언덕 비탈길을 달려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마르코 5:1-14) 불쌍한 돼지들은 악마에게나 어울리는 동물이기에 귀신들이 흔쾌히 들어가 살겠다고 한 것인 바, 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박현도, in 이찬수 외, 2013: 108-109)

그렇다면 돼지(고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바울은 제사음식 즉 우상의 제물에 대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였는데,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우상의 제물에 관한 편지의 내용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단초(端初)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ton eidolothuton; τῶν εἰδολοθυτων)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Prior, 1999: 187-200. “8. 자유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감함[고린도전서8: 1-13]” 참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방 종교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들이 일반인들에게 시장에서 팔렸는데, 이 우상제물을 음식으로 먹어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전반적(全般的)으로 자유를 찬성한다는 점(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대적인 자유함, 고전8:8, 9:19, 10:29)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양심이 덜 강한 형제(“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전 8:13])가 있는 경우에 한(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상에게 드린 제사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먹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믿음이 연약(軟弱)한 지체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제사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제(自制)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 사회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인 노릇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이에 있었다는 점이며, 또 당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도전)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지체들 중, 단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서 온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비정통기독교(정통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특히, 구약으로의 회귀(율법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이들에게서 오는 구약 음식에 대한 규례는 전혀 다른 신앙의 뿌리를 둔 이들에게서 온 질문이라는 점과 더불어 사실 그들도 오늘날 정통기독교가 구약의 음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특히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더 자유하다는 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통기독교들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정통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救贖]함이 아닌 율법 안에서의 구속[拘束]을 주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짐작한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정통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갈라디아서 2장 11-16절에서 안디옥에서의 베드로 사도와의 충돌에 대한 기록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의 충돌의 중심에는 바로 ‘[이방인들과의] 먹는 것’(갈2:12 NIV. he[Peter]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아마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듯이] 물러갔던 것이다. 베드로의 행동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하였던 것이다. 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연장자이면서도, 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그것도 면전에서(갈2:11. NIV, I opposed him to his face. KJV. withstood).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율법주의자(할례주의자, 또는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들이 온다고 피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율법에 메인 베드로의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 교리(갈2:16. NIV. KJV. by faith in Jesus Christ)를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롭다함은 음식 규율과 같은 율법의 준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갈2:16 참조). 그런데 베드로의 행위는 그러한 진리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원을 위해, 신앙을 위해, 율법을 위해, 믿음을 위해 음식을 가려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롭다하심을 부인하는 행위와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것이다.(Stott, 1994: 56-67 참조). 그러므로 율법과 관계를 가진 음식에 관한 규율의 준수는 경계를 요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거라사인의 지방”의 이천 마리의 돼지 떼의 몰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해석의 여지를 주어 기독교(예수님을)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근거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주요한 요점은 다음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를 사랑하셨다.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 만약 거기에 소(牛: 不淨하지 않은 動物)가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당시 현지의 사고로 부정하지 않는 그 어떤 다른 동물들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거라사인의 군대 마귀 들린 이”에 대한 자유함을 위해 하나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데 더 이상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한단 말이다. 더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다시 말해 돼지가 그 당시 이방 신전의 제사를 위해 사육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사건을 통해 부가적(附加的)으로 모든 이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식습관에 숨어있는 영적 우월의식

음식에 관한 규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들에게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점은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 자신들의 영적 우월의식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이다.¹⁷⁾ 마치 고린도교회의 방언처

럼 말이다. 아니 고린도교회에까지 갈 것없이 오늘날에도 자주 볼 수 있는 방언 같은 영적 은사들을 지닌 이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도 바로 영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너와 달라. 우리는 더 영적이야, 우리는 더 높은 신의식(神意識)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일부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에게서 식습관으로 인한 이러한 우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니 사회와 사회의 구성원이 채식주의를 더 도덕적이라든가 더 존엄한 존재라고 인정하여 주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Allen, 2007: 305) 이는 마치 독신생활을 결혼생활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채식을 육식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제한한다는 점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욕의 절제와 더불어 식욕의 자기 절제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의 자기 우월성은 스스로에게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채식주의의 우월성은 종교에서 기인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힌두교적인 사고(음식에 관한 브라만 계급들의 사고)가 채식주의자들의 우월성에 잠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인도인들은 식습관을 기준으로 하여 계급을 나눈다. 채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는 높은 계급(카스트)에 속하며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때문이다.¹⁸⁾ 시문스(Frederick J. Simoons)는 인도인들이 채식주의에 등급을 매기는 습관을 당시의 만화의 내용을 인용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인도의 채식주의자들은 식습관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는데, 이러한 방식을 가장 잘 묘사한 만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몇 십 년 전에 그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고드볼(Godbole)이 출간한 것을 능가할 것은 거의 없다.(Godbole, 1936: 72-73). 이 만화에는 ‘그들이 인간적인 이상형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과도가 밑동에 와서 부딪히는 등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등대의 바깥 면에는 등대 등치를 감아 오르면서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닐곱 명 보인다. 제일 낮은 단계에는 소위 야만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날것들이든 요리된 것이든 상관 없이 먹어치우는 족속이다. 거기에서 약간 위로 유럽인, 미국인, 중국인 등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 고기를 먹는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고기는 먹되 돼지고기는 피하는 사람, 또 쇠고기는 먹지 않는 사람, 고기는 먹지 않지만 생선과 달걀을 먹는 사람이 각각 한 명씩 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지만 달걀은 먹는 유럽의 채식주의자가 있다. 이는 채식주의가 준수되는 엄격성을 기준으로 한 도덕적 위계질서이다. 최고의 목표, 최고의 도덕적 수준을 불살생 원리의 가장 완벽한 실천이다. 따라서 이 등대의 맨 꼭대기는 모든 종류의 고기와 생선, 달걀을 먹지 않는 자이나코도들과 힌두교들 같은 철저히 채식주의자들과 모든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는 박애주의자들이 차지한다. 등대의 꼭대기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려라”(Live and let live)라는 봉화가 빛을 발하고 있다.(Simoons, 2005: 19-20).

17) “하지만 영양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적(靈的)인 이유로 ‘과일주의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Robbins, 2014: 299).

18) 장재우 교수는 우리나라 백정과 일본 백정(에타 穢多), 그리고 인도 백정(차마르 Camar)이 대우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장재우, 2011: 41-43).

육식을 하면 낮은 계급의 사람으로 취급당한다는 것이다. 7세기 중국 승려 현장(玄奘)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황소, 당나귀, 코끼리, 말, 돼지, 개, 여우, 늑대, 사자, 원숭이를 비롯한 유인원의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그것을 먹는 자는 불가촉천민인 빠리아후(pariah)가 된다.”고 한 것도 같은 이치다.(Jha, 2004: 85-86 재인용). 프레데릭 J. 시몬스는 위대한 영혼으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도 식습관을 통해 계급을 나누는 인도인의 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도 카스트 계급을 결정하는 데 대개 육류를 먹는지 거부하는지의 여부가 연관된다. 가장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사제인 브라만(Brahman)이지만, 그 외의 다른 카스트 구성원들도 이들이 지키는 채식주의를 모델로 삼는다. 바니아(Bania) 카스트(무역업자, 금융업자, 상인)의 일원인 간디(Gandhi)의 경우에서 이런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Simoons, 2005: 21). 오늘날에도 상위 카스트들의 식(생활)습관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상이 인도에 만연해 있는데 이를 산스크리트화(sanskritization)라고 한다. 식습관과 관련해서 김경학 등은 자신들이 현지 경험담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사제[촌락 찌드와리]에서 필자가 머물고 있었던 주겐다르 싱 바겔(Jugendhar Singh Baghel)의 형제들은 주겐다르를 제외하고 엄격하게 채식주의를 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들뿐 아니라 많은 바겔들이 채식과 금주로 식생활을 변경하고 있다. 사실은 필자를 위해 ‘치킨 마살라’라는 닭고기 음식을 놓고 마시는 작은 술자리에 주겐다르가 합류하여 함께 했지만 이를 비밀로 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김경학·이광수, 2006: 186).¹⁹⁾

4) 내용 要約

II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식습관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다만 대홍수 이후로 인간이 육식(잡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먹을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느 식습관에 대해 고집하거나 돼지고기 식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단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율법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속은 음식에 대한 구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율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필요가 있겠다.

특히 어떤 특정 식습관을 주장하는 이들의 경우 그들 속에는 영적 우월의식을 잠재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보다는 다른 타종교(특히 뉴에이지나 힌두교)의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받은 주장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II 진짜 중요한 것은

채식이나 육식이나의 식습관의 문제를 놓고 양진영간의 논쟁이 심하다. 박상언의 지적처럼 급진적

19) 사회학자 매킨 매리어트(Mckin Marriott)가 자신의 연구 논문(1968년)에서 소개한 식습관과 카스트제도와 관계되어서 발생한 사건은(Marriott, 1968; Allen, 2007: 119 인용) 참조.

채식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논리로 ‘육식=타락=폭력성’이라는 환원주의적 단순 논리구성을 볼 수 있다(소크라테스도 전쟁의 기원이 육식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광조, 2008: 30-32. Republic, 373a-e). 시인인 퍼시 비시 셸리(Percy Bysshe Shelly)가 1813년 “육식이 많은 사회악의 원인이 되는 끔찍한 습관이다”고 한 주장이 그러한 비근한 예일 것이다.²⁰⁾(Wrangham, 2011: 44)²¹⁾. 채식이 더 좋으나, 육식이 더 좋으나의 진영 논리는 양자 간의 대립과 반목을 낳기로 한다.(본고서 참고한 채식주의자들의 저서 중에서 육식주의에 대해 가장 큰 반감을 지닌 인물은 바로 육식을 거부장과 연결시키는 페미니스트인 Carol J. Adams[2006]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본다.)

급진적 채식주의에게 ‘육식=타락=인간이 폭력성’의 연쇄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은 채식=희복=인간의 자애라는 의미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급진적 채식주의자들은 폭력이 내재된 육식의 습관에서 벗어날 때, 곧 폭력이 사회에 처음부터 유입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할 때 단순한 유토피아적 이상이 아닌, 진정한 사회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폭력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과 저항은, 궁극적으로 폭력(himsa)이 약화된 날 음식, 곧 자연 음식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박상인, in 박상인, 2014: 213-214; 강조는 연구자).

육식주의가 마치 폭력의 주범인양 다루고 육식의 식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채식을 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폭력 없는 유토피아를 달성할 수 있는 걸까?

채식주의자들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흔히 반박의 예로 든 것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다. 왜냐하면 그는 채식주의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폭력의 대명사로 만인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Allen, 2007: 307-308; 김재성, in 이찬수, 2013: 40; 이광조, 2008: 76-82, “히틀러: 순결한 땅의 이방인” 참조). “심지어 영화를 보다가 동물들이 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기라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가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면이 끝나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시체를 먹는 위선적인 이들이다. 그러므로 지배자 민족을 될 자격이 없다.’”(Allen, 2007: 308)고 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믿겨지거나 하는가?²²⁾ 이론[논리]적으로는 “채식주의자=평화를 추구”, “채식=비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채식주의=평화”라는 논리는 삶에서 당연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²³⁾ 그것은 운영하는 개개인의 실천적 삶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불교의 “방생(放生)”과 같다. 논리적으로 지혜 있는 방생은 불교 본연의 정신과 의도에 맞게 자연 보호의 한 방안이며, 동물사랑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생을 하면서 외래종을 방생하면 어떻

20) 시인 퍼시 비시 셸리의 이러한 주장은 “1813년에 A Vindication of Natural Diet로 발표되었다. 그의 아내 Mary Shelley는 육식이 정신을 좀먹는다는 남편의 주장에 고무되어 1818년 소설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펴낼 때 부제를 The Modern Prometheus라고 붙였다.”(Wrangham, 2011: 271, 31번 주).

21) “비폭력 세상은 비폭력 식생활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obbins, 2014: 565).

22) “히틀러에 대한 이러한 사실 자체는, ‘채식주의자들은 천성이 평화적’이라는 생각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음식에 관한 측면에서만)은 아직도 히틀러가 ‘진짜’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내비친다. ‘그의 비타민 캡슐에 동물성 젤라틴이 들어 있지는 않았을까? 빵에 베이컨을 끼워 먹었던 건 아닐까?’”(Allen, 2007: 309).

23) 웨이커 교도의 자연주의자인 짐 코버트(Jim Corbett)는 “나는 동물을 잡아 고기를 먹으면서도 비폭력적으로 살기를 갈구합니다.”라고 고백하였다.(Corbett, 1991: 44; Sweet, 1999: 168 인용).

게 될까?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방생은 생태계의 보전이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위치이다.(http://newsa.co.kr/news/service/article/refer.asp?P_Index=23952 참조).

1 서로 싸우지 마라

1) 개인 선택과 無關한 식습관도 존재

식습관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식습관이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앞에서 본 인도의 경우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때로는 지리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빌얌무르 스테판손(Vilhialmur Stefansson)은 19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구화하지 않은 이누트족인 코퍼 이누이트(Copper Inuit, 캐나다 북부의 수목 한계선 너머에 사는 이누이트의 일파-역주)족의 식사에 대해 가장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가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이들의 식단은 사실상 식물이 없었다. 주식은 바다표범이나 순록의 고기였고 보조식으로 연어 비슷한 큰 생선을, 가끔 고래 고기를 먹었다.” (Wrangham, 2011: 49 인용). 물론 에스키모들은 부족한 비타민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사냥물의 내장으로부터 녹조류 등을 섭취한다고 한다.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들에게 채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아마 채식주의로 살고 싶어도 당시 에스키모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추운지역과 반대로 더운 사막에서도 식습관을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비약해야만 하는가』(So Shall We Leap)에서, 콜린 터지(Colin Tudge)는 “고산지대나 반(半)사막 지대 같은 혹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채식주의는 살아남기에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한다.(Tudge, 2003: 334-335; Peter & Mason, 2012: 322 인용)

2) 식습관에 서로 認定 필요

채식이나 육식이냐의 진영논리로 싸우다보면 진짜 적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은 인식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 때나 반대편의 주장을 논박할 때 매우 조심스럽다. 채식주의의 입장에서 그러한 예를 들 수 있는 경우로는 김우열이 “채식주의자보다는 채식인”(김우열, 2012: 33-34; 고미송의 유연한 채식주의에 대해서는 고미송, 2011: 121 참조)이라고 한 것이나 “먹을거리는 윤리 문제이다. 하지만 광신은 필요없다”(peter & Mason, 2012: 394)라고 한 것이다. 육식주의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예를 들 수 있는 것으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리어 키스(Lierre Keith)의 입장일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책 제목을 ‘채식주의자의 거짓’이 아니라, ‘채식주의자의 신화’(The Vegetarian Myth)라고 한 것이다.(Keith, 2013: 391). 김우열과 키스의 태도를 기술해 보자. 먼저 김우열의 기술이다.

“혹시 네 앞에서 사람들이 고기 구워먹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야만인처럼 보이거나 하지 않아?” 사람

들이 가끔씩 내게 던지는 질문이다. 아마도 나를 채식주의자로 보기 때문인 듯싶다.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채식을 실천할 뿐이다. 내가 채식을 시작한 이유는 어떤 사상이나 주의 때문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 어떤 채식주의자는 채식하지 않는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거나, 채식하지 않는 사람과 다투기도 한다. 고백하자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 ... 동물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웃과 동료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의 실천이 될까. ... 동물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동물을 사랑할 뿐이지 않는가. 흑인을 사랑하면서 백인을 미워하나, 백인을 사랑하면서 흑인을 미워하나,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잘났고 못났다는 판단을 버리고 싶다. 옳고 그르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싶다. 우리 모두 길고 긴 여정을 걸어가는 동료라고 믿고 싶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그저 채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김우열, 2012: 33-34).

리어 키스(Lierre Keith)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문제는 이 청사진이 틀렸다는 것이다.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채식주의자들] 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권력보다 정의를, 잔혹 행위보다 보살핌을, 인간 중심주의보다는 생명 사랑을 중시하는 도덕 체계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가치관의 변화다. 내가 이 책의 제목을 '채식주의자의 거짓'이 아니라, '채식주의자의 신화'(The Vegetarian Myth)라고 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Keith, 2013: 391).

2 상대 批判[指摘]에 주의

1) 지적 內容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이 지닌 영적 우월감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우월감은 전혀 건설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식습관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체질상의 원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우에 더욱 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식습관에 대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상대의 (유익한)비판 즉 지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채식주의자의 지적

채식주의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무엇일까? 인용 자료의 양의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고, 데이터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Moby & Park, 2011; Lyman, 2004; Robbins, 2014; Robbins, 2002; 김우열, 2012; 이광조, 2003 참조). 그들의 주장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읽는 이에게 내용 면에서나 분량 면에서 부담(負擔)을 주지 않는 자료 중의 하나가 바로 가수출신의 Moby와 한국인 박미연 등이 쓴 책인 『고기, 먹을수록 죽는다』(Gristle: From Factory Farm to Food Safety)다. 이 책의 다른 저자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장식 사육(Matrix를 패러디한 미트릭스 동영상: Meatrix: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5832193>; 미트릭스 II 동영상: Meatrix II: Revolting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5832308> 참조)을 통한 육식은 개인의 건강에 안 좋고, 환경문제를 발생케 하고, 동물의 복지권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기아의 문제를 일으키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많은 국민의 세금이 공장식 사육 제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식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2) 육식주의자의 지적

육식주의자의 지적은 리어 키스(Lierre Kei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채식주의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장형 농장에 대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공장형 축산만이 가축을 기르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공장형 축산에 대해 채식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다. 공장형 축산은 잔인하고 낭비가 심하며 파괴적이다. 이 책 어디에서도 산업적 식량생산을 정당화하거나 장려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시작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공장형 축산만이 가축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정하는 것부터가 착각이다.”(Keith, 2013: 17). 제시카 프렌티스(Jessica Prentice)의 말은 인용하면서 생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또 죽음을 인정해야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서로 다른 두 단어로 ‘생명’을 표현했다. 바로 비오스(Bios)와 조에(Zoe)였다.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다른 살아 있는 것의 죽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에 생명’은 계속되는 생명, 넓은 의미에서의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비오스 생명’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비오스 생명은 살아 있는 생명의 개별적인 생명을 의미한다. 조에는 비오스를 취한다(죽이고 소비하고 먹고 희생하고 필요로 한다) 수많은 영적 단체와 종교 전통의 세계관은 이 성인의 지식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죽음은 특정 생명(비오스)의 끝이지만, 생명 자체(조에)의 끝은 아니다. 조에 생명은 영원하고 죽음을 넘어선다.”(Prentice, in Keith, 2013: 130 인용). 무엇보다도 자신의 20년 동안 비건(vegan)생활을 통해 경험한 결과는 채식주의는 배고프다는 것이다. 채식주의자의 삶은 마치 “한적한 비건의 해안선 너머에는 과식[果食]주의자의 배고픈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건너면 호흡주의자[呼吸主義者, breatharian, 인간은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역주]의 약속의 땅이 있다.”(Keith, 2013: 114)고 지적한다. 동물이 감각이 있는 것처럼 식물도 감각²⁴⁾(Chamovitz, 2013 참조)이 있다는 사실을 채식주의자도 인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채식주의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은 식물에게 감각이 있다는 것을 언제쯤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무가 나무껍질을 해충에 갇혀 먹히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금방 죽지만 공동체에 속한 경우 몇 년을 더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공동체에서는 다른 나무가 이 상처 입은 나무에게 탄소, 인, 당을 비롯한 필요한 것들을 보낸다. 고래가 사랑하는 병든 동료로 수면으로 데리고 가 주는 것과 이 나무들이 어떻게 다를까? 왜 식물은 ‘우리’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식물과 인간은 DNA의 50%를 공유한다.”(Keith, 2007: 159) 그러면서 “생명에는 범위가 없다.”고 주장한다.(Keith, 2007: 161).

24) “연구를 통해 나는[Daniel Chamovitz] 식물이 스스로 빛 속에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독특한 유전자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내 예상과는 달리 인간의 DNA 속에도 이와 동일한 유전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무척이나 놀랐다. 이 발견은 ‘식물에게 특화된’ 듯한 이 유전자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꽤 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연구들을 거친 끝에 동식물이 이 유전자들을 공유할 뿐 아니라, 이 유전자들이 동식물의 빛에 대한 반응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그 밖의 여러 발달 과정들 중에서도) 밝혀냈다!”(Chamovitz, 2013: 10).

의사인 존 맥도걸(John McDougall)이 자신의 책의 “10장. 똥똥한 채식주의자.”에서 채식주의자들에게(물론 자신도 채식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 나는 여기서 콩이 건강에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콩음식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인위적인 콩음식으로 식단을 꾸미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콩음식은 암발생을 높이며 갑상선기능과 뇌기능의 위험을 초래하고 뼈의 손상 및 재생기능 문제를 일으킨다. 가짜고기와 가짜 치즈 등은 정제된 콩단백질에 화학적 혼합물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이다.”(McDougall, 2014: 184. 강조는 연구조).

한스-울리히 그림(Hans-Ulrich Grimm)도 자신의 책 『위험한 신탁: 건강식품의 기만, 그 위험한 이야기』(Vom Verzehr wird abgebraten)의 “1. 건강한 섭생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에서 식물성 지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비록 쥐에게 한 연구이지만 말이다.

바인게르트너(심장학자이자 심장전문가인 Oliver Weingaertner)와 연구팀이 쥐한테 베첼 프로 액티브 마가린에 들어간 첨가물 피토스테롤을 먹이자 “동맥이 경화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쥐들의 혈관에 상당량의 피토스테롤이 쌓인 것이다. 바인게르트너는 쥐들의 심장도 조사했다. “우리는 이 피토스테롤이 심장 조직과 심장관상혈관에도 축적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피토스테롤 첨가물을 먹인 쥐들의 혈관과 심장판막에는 실제로 그 물질이 쌓여 있었다. 피토스테롤, 또는 피토스테롤은 식물성 스테롤이라고도 불린다. 바인게르트너는 피토스테롤이 심장 조직에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는 우려를 자아낼 만한 충격적인 결과였다. 수많은 사람이 심장을 보호하겠다고해서 바로 그 물질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스 프리드리히도 그런 사람이었다. 식물성 스테롤은 베첼 프로 액티브 마가린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다른 많은 제품들에 작용물질로 들어가 있다. 식물성 스테롤은 한마디로 예방 식품 사업의 히트작이었다. 대규모 제약회사들도 그 물질을 공급한다. 미국의 거대 영농기업들이 식물성 스테롤을 생산하고, 바스프(BASF) 같은 화학기업이나 유니레버와 다논 같은 기업은 그것을 제품에 섞어 심장을 보호한다는 약속으로 제품을 선진한다.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면 그 제품들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적어도 쥐를 통한 실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다(Grimm, 2013: 23-24).

(3) 지적에 대한 再考

양자의 지적에서 재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채식과 육식의 논쟁에서 지양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이다. 양자의 지적, 비록 여기서는 열거하지 않았지만 채식주의와 육식주의자 간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영양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의 가치”(단순 연구결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의 연구에서는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이리저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 식의 사실 인정으로 끝났으면 한다. 이는 그 연구 결과를 실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건강과 환경에서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면서도 개개인의 적용에 있어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무엇이 좋더라, 무엇이 좋더라.” 식의 연구결과는 의학 박사 스티븐 브래트먼(Steven Bratman)이 지적한 것처럼 “건강식품 탐욕증”(orthorexia nervosa)(Keith, 2007: 373)을 야기해서 음식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과 식물의 감각의 유무에 관한 논쟁도 지양(止揚)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 또한 연구자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또 연구자마다 감각의 범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동물에게만 감각이 있다는 사람과 식물에게도 감각이 있다는 사람이 서로 합의할 수 있을까. 동물에게 감각을 인정하는 사람이 식물에게 감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2) 비판해야 할 진짜 相對

채식과 육식의 논쟁에서 지양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 것은 채식과 육식은 서로의 근본적인 적대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식과 육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식습관이며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가 비판해야 할 진짜 상대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식주의자들의 비판을 잘 생각해 보자. 그들의 비판은 공장식 사육에 있다. 공장식(工場式 農場: factory farming, 특히 집중가축사육시설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CAFO)으로 인해, 동물들이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곳에서 사육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닭의 경우)부리를 자르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과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지역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지후 온난화와 같은 지구생태변화에도 악영향을 주고, 또 많은 가축 사육과 빠른 속도로 비육을 위해 많은 곡물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식량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집중 가축사육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많은 산재(産業災害)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열악한 환경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과도 밀접하게 관계되고,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그곳에 투여하게 된다는 것 아닌가.

육식주의자들의 비판 또한 잘 생각해 보라. 너희가 먹는 식물이 과거의 식물 그대로 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닌가. 사과가 사과인가? 과거의 사과에 지금의 사과가 영양학적으로 같은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Pollan, 2007: 47²⁵); 진짜 야생사과를 먹은 Michael Pollan의 반응에 대한 기술은 Keith, 2013: 39 참조). 콩이 과거의 콩이고 옥수수가 과거의 옥수수인가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GMO 투성이의 채식을 한다면 그것이 너의 몸에 좋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먹는 탄수화물이 과거에 먹은 탄수화물과 같은 탄수화물과 같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닌가. 또 비록 영양학 상으로는 과거와 비슷하고 아니 그보다 더 우수하다고 해도 모든 것이 연구실에서 만든 화학성분들을 첨가한 식품들이 대부분일 경우 비록 첨가제가 영양학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유익하겠는가는 점이다.²⁶ 비록 채식이라고 하고 그곳에 동물성 기름(지방)이 없다고 해도, 비록 영양학적으로 식물성 지

25)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씨로 심어서 키운 사과나무의 사과를 두고, ‘어찌나 시딘지 다람쥐가 진지리를 치고 비명을 지를 정도다’라고 썼다.(Pollan, 2007: 47).

26) “우리는 이제 분자 수준에서는 단백질이 단백질이라는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생태적인 수준이나 종의 수준에서는 그 말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식인 부족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듯이, 자신과 같은 종의 고기를 먹으면 특별한 질병의 위험이 따른다.”(Pollan, 2008: 103); “영양표에 근거해 음식을 환원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현대 산업 식품으로는 사람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 옥수수로 만든 시리얼과 기름을 짜낸 콩 찌꺼기를 산으로 녹여 재활용한 두유를 먹는 채식주의자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유진규, in Keith, 2013: 8; 유진규[타규멘터리PD], “추천사”, 5-9 참조).

방이라고 해도 그것이 몸에서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식품에도 과도한 양의 소금, 설탕, 지방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육식이나 채식이나를 떠나서 섭취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누가 공장식(工場式 農場: factory farming, 특히 집중가축사육시설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CAFO)을 주도하는가? 누가 GMO투성이의 농작물을 공급하는가. 누가 식품에 화학 첨가제를 투여하는가. 다시 말해 누가 산업적 요리²⁷⁾와 식품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가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음식과 관련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인지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들이다. 진정으로 비판해야 할 상대방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먹는 이들이 아니라, 채식이든 육식이든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들이다. 바로 돈에 눈이 먼 기업과 개인(식품자본주의, Keith, 2013: 315),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생산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연구자들, 그리고 그것을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나르는 언론매체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먹거리와 관계해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자의든 타의든 관계없이 묵인하는 정부와 이 사회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다. 키스의 지적을 길게 적어본다.

과점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 곡물 시장. ... 두유를 먹을 때나 두유와 함께 먹는 유기농 잠곡 시리얼의 상표를 자세히 살펴보자. 닌푸드는 화이트웨이브실크의 소유주다. 닌푸드의 대주주는 시티그룹, 코카콜라, 엑손모빌, GE, 홈데포, 마이크로소프트, 필립모리스, 월마트 등이다. 내가 속한 식품 협동조합의 연례 바비큐 파티 음식 중 매년 콩을 원료로 한 식품 메뉴에 들어 있던 '정의의 사도' 라이트라이프도 콘애그라 소유다. 베어리터스, 브레드숍, 셀레스칠시즈닝스, 가든오브이팅, 헬스밸리, (라이스트림을 만드는) 이매진푸드, 테라칩스, 웨스트브레이 등은 모두 헤인푸드 그룹 소유다. 헤인푸드의 주요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와 지주 회사들이고 대주주는 시티그룹, 엔터지뉴클리어(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엑손모빌, 무기제조업체 록히드마틴, 몬샌토, 필립모리스, 그리고 '우리의 친구' 월마트 등이다.(Keith, 2013: 196-197)

식품 산업 자본의 임상 실험 대상이 된 세계인 ... 농업과 식품 산업은 미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연간 판매량은 1조 달러로, 국민총생산(GNP)의 13%를 차지한다. ... 식품업계에서는 매년 33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광고에 사용한다. 그들이 가장 저렴한 생산비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영양없는 불량식품)을, 당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지방이 없다는 이유로 "심장에 좋은 음식"으로 광고할 수 있음에 주목하자. 설탕과 식물성 경화유를 어린이를 포함한 미국 시민에게 밀어 붙이는 데 펩시코 한 곳에서 쓰는 광고비만 10억 달러가 넘는다. 식품업계는 또 의사, 영양사,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대학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인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으면 여행 경비나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공공연한 스폰서' 역할을 한다. 또 전문 학술지에도 자금을 낸다. 『미국 임상영양학 소사이어티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Nutrition)은 제너럴푸드, 케어커오즈, 베스트푸드 등과 같은 초거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슬림패스트푸드, 슈거어소시에이션, 네슬레·카네이션, 코카

27) "산업적 요리는 우리 건강과 참살이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 기업은 우리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요리한다(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업자원의 요리를 요리 대신 '식품가공'이라 한다) 기업은 설탕과 지방, 소금을 사람들이 요리할 때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집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새로운 화학재료를 사용해 식품 보존 기간을 늘리고 실제보다 훨씬 신선해 보이도록 한다. 그래서 가정식 요리가 줄면서 비만이 증가하고 식단과 연관된 만성질환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다."(Pollan, 2014: 17).

콜라 등도 기타 전문 학회지에 돈을 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슈미트는 말한다. “코카콜라가 영양학 학회지에 돈을 대는 의도가 그 학회지의 내용과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렵다.”(Keith, 2013: 315, 316, 320).

IV 나가는 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한다.

1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 모두에게

다시 말하지만 식습관에 대한 서로의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언쟁(言爭)은 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신들의 식습관이 가지는 이익을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직한 공개가 필요 한다. 왜냐하면 다른 식습관을 가진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 상대방의 진지한 반론이 있을 때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경청해야 할 것이다.

채식주의에서 육식주의로 전향한 키스가 언급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디에서 이 음식은 왔는가?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한다. 식사 전에 하는 새로운 기도로 삼아도 좋다. 내 앞에 놓인 음식이 표토를 만들어 냈는가, 파괴했는가? 태양과 빗물로 자란 음식인가, 화석 토양, 화석 연료를 먹고 습지대를 말리고 강을 파괴한 화석 용수를 마신 음식인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땅에서 자란 음식인가, 아니면 석유로 범벅이 되어 미끈거리는 길을 거쳐 내 밥상에 오른 음식인가?”(Keith, 2013: 395-396).

싱어²⁸⁾는 자기가 먹는 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물성 식품만을 먹어야 한다고

28) 싱어와 메이슨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Peter & Mason, 2012: 379-398).

1. 투명성: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
2. 공정성: 식품 생산의 비용을 다른 쪽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3. 인도주의: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4. 사회적 책임: 노동자들은 타당한 임금과 작업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5. 필요성: 생명과 건강의 유지는 다른 욕망보다 정당하다.

참고로 생명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다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생명 밥상 수칙’과 같은 노력들이 요구된다(김수경, 2004: 212-213) 1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애용한다.; 2 제철 음식을 먹는다.; 3 가공식품을 삼간다.; 4 외식을 최대한 줄인다.; 5 계획 구매하며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6 단순하게 조리하여 먹을 만큼 담아낸다.; 7 반찬수를 줄여 간소한 상을 차린다.; 8 육식보다 곡식과 채소를 즐긴다.; 9 생명 중심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는다.; 10 신음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소식한다.; 11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 12 최소한으로 배출된 음식쓰레기는 재활용한다.

주장한다. 나도 공장형 축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되는 현실에 대한 거부와 무지를 깨부수기 위한 이러한 충격 요법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비단 동물성 식품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이 먹는 음식 한입 한입이 모두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Keith, 2013: 396).

더 나아가 음식 평론가인 마이클 폴란(Michael Pollan)의 지적처럼 진짜 음식을 고루는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교육해 가야만 할 것이다.

음식 평론가 마이클 폴란(Michael Polan)의 주장처럼 우리는 영양소가 아니라 진짜 음식을 고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교육시킬 때가 되었다. 폴란이 말한 진짜 음식이란 자연 그대로이거나 약간만 가공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친숙한 음식이다. 반면 영양소란 필수 지질, 아미노산, 비타민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로, 우리가 의심해 볼 생각도 없이 믿어야 할 과학적 전문 지식의 대상이다. 음식이 가공되지 않을수록 비만 문제는 덜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Pollan, in Wrangham, 2011: 263 인용).

2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육식주의자가 되든 채식주의자가 되든 그것은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다. 다만 앞에서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들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에서의 요구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식습관과는 별도로 필요한 것임을 인지해야만 한다.

식습관과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교회의 방언처럼 자신들의 영적인 우월성을 위해서라든가, 구약(율법의 준수)으로 회귀를 위한 어떤 특정 식습관을 고집하는 것(일반적으로 채식과 돼지고기 식육에 대한 반대)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은 식습관으로부터의 자유함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건강상(고지혈증이나 혈압의 문제 등)으로나, 육식에 비해 채식이 더 환경보호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스스로 채식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일 따름일 것이다. 다만 그러한 삶을 한 개인이 살더라도 다른 지체(肢體)들에게 강요(強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반 성도들과 다른 식습관(금식도 포함)으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자라나는 영적 우월의식[自慢心]은 본인 스스로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는 채식주의자든, 육식주의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위트(Leonard Sweet) 교수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서투르지만 기독교적 관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 작가 무명의 다음의 시를 들려준다고 한다. 이 시를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므두셀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은 그냥 먹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듯이 칼로리를 재가며 먹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음식이니까. 그는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고민하지 않았다.
파이나 구운 고기를 그냥 맛있게 먹을 뿐, 몸에 좋은 지방인가,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느라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즐겁게 음식을 씹어 먹었다.
두려움이나 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선한 과일이지만 무언가, 자기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900년도 넘게 살았다(Sweet, 1999: 172-173).

참고문헌

- 고미송 (2011). 『채식주의를 넘어서』. 서울: 푸른사상.
- 김경학·이광수 (2006). 『암소와 갠지스』. 부산: 산지니.
- 김수경 (2004). 『예수님은 뭘 먹고 살았을까』. 서울: 넥서스BOOKS.
- 김우열 (2012). 『채식의 유혹: 육식의 족쇄를 풀어라!』. 서울: 퍼플카우.
- 박상언 엮음 (2014). 『종교와 동물 그리고 윤리적 성찰』.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이 책어 박상언, “간디와 프란체슈타인, 그리고 채식주의의 노스텔지어”. 201-224, 김일방 “채식주의의 윤리학적 근거”. 225-251.
- 엄익란 (2011). 『할랄, 신이 허락한 음식만 먹는다』. 파주: 한울. 2011.
- 이광조 (2003). 『채식이야기』. 초판2쇄. 서울: 연합뉴스. 특히 “4장. 자아와 영성. 7. 사랑의 기독교와 채식.” 303-312 부분 참조
- 이광조 (2008). 『역사 속의 채식주의: 피타고라스에서 뉴턴까지』. 파주: 살림.
- 이찬수 외 15인 (2013). 『식탁의 영성』. 서울: 모시는사람들. 참고로 이 책에는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재성(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명상심리학과 교수) “붓나는 무엇을 먹었나?”, 27-40.; 박태식(성공회 장애인센터 ‘함께 사는 세상’ 원장),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먹거리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87-100.; 박현도(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알라의 이름으로: 이슬람 음식 문화 속의 지혜”, 101-118.
- 장재우 (2011). 『쌀과 육식문화의 재발견』. 서울: 청목출판사. 특히 “Chapter 2. 사회적 신분을 결정시키는 식생활.” 41-48.
- 장 후세인 엮음 (2013). 『이슬람』. 서울: 젠나무민복스. “6. 할랄(Halal: 허용된 것) & 하람(Haram: 금지된 것)” 177-190.
- 정환진 (2012). 『왜 그 음식은 먹지 않을까: 세계의 금기음식 이야기』. 초판3쇄. 파주: 살림.
- 최 훈 (2012).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고양: 사월의책.
- Adams, Carol J. (1990). *The Sexual Politics Meat*. 이현 역 (2006). 『육식의 성정치 페미니즘과 채식주의의 역사의 재구성』. 서울: 미토.
- Allen, Stewart Lee (2002). *In the Devil's Garden*. Ballantine. 정미나 역 (2007). 『악마의 정원에서』. 초판8쇄. 서울: 생각의나무
- Attfield, Robin (1991).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2nd edn. University of Georgia Press. 구승희 역 (1997). 『환경윤리학의 제문제』. 서울: 도서출판따님.
- Chamovitz, Daniel (2012). *What a Plant Knows: A field guide to the senses*. New York: Farrar, Strauss and Giroux. 이지윤 역 (2013). 『식물은 알고 있다: 보고, 냄새 맡고, 기억하는 식물의 감각 세계』. 초판3쇄. 서울: 다룬.
- Colbert, Don (2002). *What Would Jesus Eat*. Thomas Nelson. 김지홍 역 (2003). 『예수님처럼 식사하라』. 서울: 브니엘.
- Gandhi, Mohandas K. (1957).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eacon Press. 박홍규 역 (2007). 『간디 자서전: 나의 진실추구 이야기』. 서울: 문예출판사.
- Grimm, Hans-Ulrich (2012). *Vom Verzehr wird abgebraten*. Droemersch. 이수영 역 (2013). 『위험한 식탁: 건강식품의 기만, 그 위험한 이야기』. 서울: 올리시즈. 특히 “1장. 건강한 섭생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7-33.
- Jha, D. N. (2002). *The Myth of the Holy Cow*. Verso. 이광수 역 (2004). 『인도 민족주의의 역사 만들기: 성스러운 암소 신화』. 서울: 푸른역사.
- Joy, Melanie (2010). *Why we love dogs, eat pigs, and wear cows: An introduction to carnism*. 노순옥 역 (2011).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모멘토
- Keith, Lierre (2009). *The Vegetarian Myth*. 김희정 역 (2013). 『채식의 배신: 불편해도 알아야 할 채식주의의 두 얼굴』. 부키. 다큐멘터리 PD인 유진규가 쓴 추천사가 있다. 유진규, “추천사”, 5-9.

- Lyman, H. F. (1998). *Mad Cowboy*. 김이숙 역 (2004).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 문예출판사. 이 책은 같은 출판사와 번역자에 의해서 『성난 카우보이』 (2001)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적이 있다.
- McDougall, John (2012). *The Starch Solution*. New York: Rodale, Inc. 강신원 역 (2014). 『어느 채식주의자의 고백』. 서울: 사이몬북스. 특히. “10장. 똥똥한 채식주의자.” 173-191.
- Moby and Miyun Park, et al. (2010). *Gristle: From Factory Farms to Food Safety*. The New Press. 함규진 역 (2011). 『고기, 먹을수록 죽는다』. 현암사.
- Müller, Klaus E. (2003). *Nektar und Ambrosia*. München: C. H. Beck. 조경수 역 (2007). 『넥타르와 암브로시아: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인류학적 기원』. 안티구스
- Pollan, Michael (2001). *The Botany of Desire*. Random House. 이경식 역 (2007). 『욕망하는 식물』. 서울: 황소자리.
- Pollan, Michael (2006). *The Omnivore's Dilemmas*. Viking. 조윤정 역 (2008). 『잡식동물의 딜레마』. 서울: 다른세상.
- Pollan, Michael (2013). *Cooked: A natural history of transformation*. 김현정 역 (2014). 『요리를 욕망하다: 요리의 사회문화사』. 서울: 에코리브르.
- Prior, David (1985). *The Message of 1 Corinthians: Life in the Local Church*. Leicester. 정옥배 역 (1999).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IVP.
- Robbins, John (1997). *Diet for a New America*. 이무열·손혜숙 공역 (2014). 『육식의 불편한 진실』. 2판1쇄. 과주: 아람드림미디어. 이 책은 동일 출판사에서 이무열에 의해서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식생활 혁명』. (서울, 2001)이라는 이름으로 (I)·(II)로 나누어 출판된 적이 있었다.
- Robbins, John (2001). *The Food Revolution*. 안의정 역 (2002). 『음식혁명』. 서울: 시공사
- Simoons, Frederick J. (1994). *Eat Not This Flesh: Food avoidances from prehistory to the present*.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김병화 역 (2005). 『이 고기는 먹지 말라?: 육식 터부의 문화사』. 과주: 돌베개. 특히 “제1장 서론”. 13-25. “제2장 돼지고기”. 29-146. “제3장 쇠고기”. 149-201.
- Singer, Peter & Jim Mason (2006). *The Ethics of What We Eat*. 함규진 역 (2012). 『죽음의 밥상』. 초판17쇄. 서울: 산책자.
- Stott, John (n.d). *Only One Way*. 문인현·김경신 공역 (1994). 『오직 한 길』. 아가페출판사
- Sweet, Loenard (1996). *The Jesus Prescription for a Healthy Lif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조치형 역 (1999). 『예수님의 건강 신계명』. 인천: 예향. 이 책의 6장. “밥상을 차려라”. 149-174를 참조하라.
- Wrangham, Richard (2009). *Catching Fire: How cooking made us human*. New York: Basic Books. 조현욱 역 (2011). 『요리 본능』. 서울: 사이언스북스. 최재천 교수의 “추천의 말: 불의 발견에서 요리의 발명으로”. 5-10가 포함되어 있다.
- Wright, Nicholas Thomas (2007). *Surprised by Hope*. London: SPCK. 양혜원 역 (2009).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나라』. 서울: IVP.

[再引用 資料]

- Corbett, Jim (1991). *Goatwalking*. New York: Viking.
- Hecker, H. M. (1982). "A zooarchaeological into pork consumption in Egypt from prehistoric to new kingdom times". *Journal of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19. (1982). 59-71
- Marriott, Mckin (1968). "Caste Ranking Food Transactions: A matrix analysis." *Structure and Change in Indian Society*. Chicago: Aldine Publishing.
- Newton, John Frank (1811). *Return to Nature or, A Defence of the Vegetable Regime: With some account of an experiment made during the last three of four years in the author's family* London. 4-6..
- Nilsson, Martin P. (1940). *Greek popular relig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assmore, John (1975). "The Treatment of Animals". *Journal of History of Ideas*. 36. 195-218.
- Tudge, Colin (2003). *So Shall We Reap*. London: Allen Lane.